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3년 03월 18일
(월요일)

동북일보 5면

복지건설위원회, 수유역 주변 환경 개선 현장활동

질서없는 자전거 주차와 방치된 노점 리어카 등 주변 환경 개선 요구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는 3월 14일 수유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수유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마무리되어 구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지만 출입구 주변으로 자전거가 질서 없이 주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노점 리어카 등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진행되었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8번 출입구에는 방치된 자전거와 노점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 화분을 배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다.

이백균 위원장은 “수유역 6번 출구 앞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홍보와 계도가 부족하여 자전거가 지하철역 주변에 방치되고 있어 단속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에 암묵적으로 노점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로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포장마차 리어카 등이 낮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수유역을 방문해 8번 출입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화분들을 보고 있다.

강북신문 4면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수유역 주변 환경 현장을 둘러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복지건설위원회, 14일 수유역 현장활동 실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는 3월 14일 수유역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수유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마무리되어 구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마련됐지만 출입구 주변으로 자전거가 질서 없이 주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노점 리어카 등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진행됐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8번 출입구에는 방치된 자전거와 노점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 화분을 배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다.

이백균 위원장은 “수유역 6번 출구 앞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홍보와 계도가 부족하여 자전거가 지하철역 주변에 방치되고 있어 단속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에 암묵적으로 노점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포장마차 리어카 등이 낮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 현장방문 활동으로 민생 챙겨

사업 추진 현장 방문하고 의견 청취 수유역 주변 환경 개선 위한 현장활동 실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의원들이 강북봉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수유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활동에서 자전거 주차장 활용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종순)는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강북구 드림스타트센터 등 다양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기 전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1일 강북구정신보건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강북구 드림스타트센터, 강북봉제지원센터, 오동골프클럽, 냉천길 공영주차장 등 4일 동안 일정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사업 추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 드림스타트 센터 및 봉제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냉천길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을 단속 등의 조치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종순 위원장은 "이번에 진행된 현장 방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되고 또한 현장에 나가 직접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평소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 구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는 지난 14일 수유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수유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마무리 되어 구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지만 출입구 주변으로 자전거가 질서 없이 주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노점 리어가 등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진행되었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8번 출입구에는 방치된 자전거와 노점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 화분을 배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

루어질 것을 요청하였다.

이백균 위원장은 "현재 수유역 6번 출구 앞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홍보와 계도가 부족하여 자전거가 지하철역 주변에 방치되고 있어 단속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자전거 주차장 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야간에 암묵적으로 노점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포장마차 리어가 등이 낮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